いくさ船[[1]](#footnote-1)

明治天皇御製

（海軍에 關하여 지으신 것 몇首）

戰にかちてかへりしいくさ船けふもかゝれりしながわの沖

謹譯。싸음싸호아 이기고 돌아오는 싸호는배들 오늘도 들어오네 시나가와 앞바다

　　　　　　　　　　〇

すすめてふ旗につれつゝいくさ船かろくも動く浪の上かな

謹譯。나아가라는 旗발의 군호 따라 싸호는배들 가벼이도 달리는 바다의 물결이이

　　　　　　　　　　〇

あたの船うちしりぞけていくさびと大海原の月や見るらん

謹譯。원수의 배를 쳐물려치고 나서 사홀아비들 가없는 난바다의 달 바라고 있으니

　　　　　　　　　　〇

なみ遠くてらすともしびかゝげつゝ仇まもるらむわがいくさ船

謹譯。멀리 물결을 불들어 비최면서 (기나긴밤에) 敵兵을 지키리라 우리 싸홈하는 배

　　　　　　　　　　〇

港江に萬代よばふ聲すなりいさををつみし船やいりくる

謹譯。浦口머리에 萬歲萬歲 부르는 소리 들리네 勝戰하야 功세운 배 들어오나 브다

　　　　　　　　　〇

勇ましくかちどきあげて沖つ浪かへりし船を見るぞうれしき

謹譯。긔운차게도 승전鼓喊 지르며 물결 혀치고 돌아오는 배 보니 깃븜도 깃블시고

(謹譯 香山光郎)

1. 『新時代』1941年5月号 [↑](#footnote-ref-1)